

영화 '천문:하늘에 묻다' 장영실 역 최민식

# “나와 한석규는 아직 젊어 같이 코미디 해보고 싶다”

## 조선 과학자의 순수한 모습 보여줘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그 이름과 업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기록이 부족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땠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배우 최민식(57)은 영화 '천문:하늘에 묻다'에서 장영실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만들어냈다. 최민식의 장영실은 아기처럼 순진하고 순수하며 때로는 귀엽기까지 한 '세종 바라기'였다.

18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최민식은 “공상하고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함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가 해왔던 선이 굵은 연기와는 다르다는 말에 “항상 새로운 시도는 재밌다”며 “통통해서 호빵맨 같다고들 한다”고 크게 웃었다.

영화 속에서 장영실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세계는 세종과 세종이 이루고자 하는 뜻에 맞춰 돌아간다. 때문에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가 '브로맨스'를 넘어 멜로로까지 읽히는 순간이 있다.

최민식은 “큰 뜻을 품은 세종에 매미처럼 붙어서 돕는 장영실의 여러 감정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길 바란다”고 돌아봤다.

“우리가 이미 아는 역사가 (영화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농담도 주고받고 의견대립도 했겠죠.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그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극과 차별화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묘하고 치열하고 서글프고 애절한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죠.”

“장영실이 감독한 안여(安輿·임금이 타는 가마)가 튼튼하지 못해 부서져 임금부에 내리 국문하게 했다”는 세종실록의 역사 이후에는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없다. 감독과 배우가 상상력으로 빈 곳을 채워나갔다.

최민식은 “역사 속 인물을 성격화하는 것이 내 취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큰 뜻을 이뤄냈을 때가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생



영화 '천문'에서 세종 역 한석규와 장영실 역 최민식

각한 장영실은 정치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창작자의 자존심만 있는 사람이예요. 나를 알아주는 임금과 그 사람 앞에서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만 생각하는 사람요.”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브로맨스가 완성되는 삼십년지기 최민식과 한석규의 연기 호흡이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연극영화과 선배 사이이며 '쉬리' 이후 20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났다. 한석규에 대해 말할 때 최민식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석규는 정말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요. 티프프 늘어진 것 같은 그 목소리도 그렇고요. (웃음) 추무로서는 흔치 않은 작게 ‘졸따구’죠. 우리가 함께했던 ‘넵빠3’이나 ‘쉬리’를 보통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다양한 색깔의 감독과 작품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추억에 취해서 살지는 않아요. 우린 아직 젊거든요.”

최민식은 “천문”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두 배우에게 “배역을 알아서 정하라”라고 했다는 후문도 전했다.

최민식은 “한석규가 ‘세종 할계요’라고 해서 내가 장영실을 하겠다고 했다”며 “나는 ‘천문’이 아니어도 한석규랑 작업했을 거다. 같이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최민식은 “나는 나이 먹기 전에 따끈따끈한 멜로나 한석규와 함께 코미디를 꼭 해보고 싶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 ‘MRO, 첨단 항공산업의 미래를 열다’

### 목포문화방송 특집 다큐

오늘 밤 10시 5분 방송

목포문화방송(대표이사 김영석)이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MRO, 첨단 항공산업의 미래를 열다’ (사진·연출 문연철·촬영 고재필)를 19일 밤 10시 5분에 방송한다.

이번 특집다큐는 세계 MRO시장을 주도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MRO 선두주자인 인도네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한국 MRO 시장의 현 주수와 무안항공특화산업단의 성장조건을 조명했다. MRO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사업을 일컫는다.

개항 13년째인 무안국제공항은 국제노선을 중심으로 이용객 수가 급증하면서 호남은 물론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무안공항과 연계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정부 승인을 받는 등 국



내 MRO시장에 첫 발을 디더 국내외가 주목하고 있다.

무안군은 항공 특화산업 조성사업의 정부 승인을 이끌어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 특화산업은 무안국제공항 옆 35만㎡ 부지에 항공 정비와 항공정비 제어 시스템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형식이다.

다큐를 연출한 문연철 기자는 “해외 취재 과정에서 접한 세계 굴지의 MRO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주목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거점 MRO기지로서 투자 관심이 많았다” 말했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 BTS, 미국 최대 신년쇼 출연 맨해튼 달군다

### 최대 2500만 미국인 시청

### 국내에서도 엠넷 생중계

그들 방탄소년단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출연하는 ABC 방송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Dick Clark’s New Year’s Rockin’ Eve)’는 올해 48회째를 맞는 미국의 최대 새해맞이 라이브 쇼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등 미국의 대표적 도시에서 신년 전야부터 5시간 30분간 특별 공연이 펼쳐지면서 새해 첫날을 맞이한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박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대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시청한다. 특히 이 행사에 두 번 이상 출연하는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글로벌 스타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한 싸이가 이 행사 무대에 올랐다. 당시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인 가운데 ‘말춤’을 따라 추며 한 해를 보내는 장관을 연출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할리우드 무대에서 사전노화를 통해 이 행사에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DNA’와 ‘마이크 드롭’(MIC Drop) 등 두 곡 무대를 선보였다.

ABC 방송이 생중계하며,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1일 오전 9시 55분 엠넷을 통해 생방송 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스테라(재)	00 99억의 여자(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10 굿바이 이세돌! 이세돌 vs 한돌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푸르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취라기 캡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5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5 두 번은 없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네모세모(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맨 인 블랙박스(재) 20 톤 워리 스텔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TV블로그 꿈지락 스페셜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테라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0 점수! 무비월드 스페셜
[12]	35 KBS 뉴스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다큐프라임	45 나이트라인

## EBS1

07:00 출동! 슈퍼핑크	13:00 다큐 시선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걸음 기쁨 동네책방	18:30 최고!대 호기심 딱지
08:00 땀땀 땀 땀 땀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8:30 미니특강다 슈퍼공룡파워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0 출동! 슈퍼핑크(재)	20:00 4남매 쇼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30 자이언트 팽TV
09:15 울리 앤 로	15:55 미니특강다 슈퍼공룡파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6:10 예술아 놀자	<로마로 가는 길-사랑한다면 이틀처럼>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땀땀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츠르카워도 좋아, 츠티기행 4부 깨주메기 사랑 띄웠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다큐 시선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든지 뮤직박스	22:45 뫼하트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2:10 뫼하트	17:45 울리 앤 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 (음 11월 23일 庚寅)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손해가 따른다. 48년생 등 잔 믿이 어렵다는 속담을 명심하라. 60년생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판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72년생 자꾸 부딪히거나 행태를 따르므로 다시 점검 해봐야 한다. 84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96년생 지향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 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57, 56</p>	<p><b>午</b></p> <p>30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42년생 절대대 대중 넘길 문제가 아니니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54년생 지나치다만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66년생 가법지 않아야 면역하리라. 78년생 아무리 공리해 봐도 별다른 방도가 없겠다. 90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4, 28</p>
<p><b>丑</b></p> <p>37년생 기왕이면 호환성을 띠는 것을 선택하라. 49년생 큰 것만을 바라다가 작은 것 마저 놓친다. 61년생 가법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라. 73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85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97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행운의 숫자 : 96, 09</p>	<p><b>未</b></p> <p>31년생 오히려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43년생 품은 고달프지만 보람을 느낄 것이니 수용하라. 55년생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67년생 확실 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9년생 지리멸렬하여 왔던 소강상태를 끝내게 될 것이다. 91년생 긴박한 상황에서 전 근만마처럼 나타나는 은인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1, 19</p>
<p><b>寅</b></p> <p>38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여들지 말라. 50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니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62년생 잘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74년생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86년생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라. 98년생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5, 11</p>	<p><b>申</b></p> <p>32년생 임시변통적 처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니 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44년생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56년생 목표에 도전해도 되는 무난한 날이로다. 68년생 넉넉하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0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낳으리라. 92년생 순리에 따르면 거리낄 것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08</p>
<p><b>卯</b></p> <p>39년생 가끔씩 빨리 시작 해야만 겨우 끝낼 수 있는 바탕이다. 51년생 예견된다면 확실히 회피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만회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느니라. 75년생 평소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87년생 죽을 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99년생 완벽하게 합치하기가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40</p>	<p><b>酉</b></p> <p>33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불 일이다. 45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은 해소하는 것이 맞다. 57년생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 불 일이다. 69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봐야 한다. 81년생 여러 번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93년생 초기에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30, 84</p>
<p><b>辰</b></p> <p>40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52년생 매우 소중히 여겨야겠다. 64년생 현하의 국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76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88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00년생 생기는 하나 만족 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겠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8, 72</p>	<p><b>戌</b></p> <p>34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46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8년생 털어 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70년생 힘들었을 때 근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자. 82년생 죄는 지는 데로 가고 덕은 닦는 데로 간다. 94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다. 행운의 숫자 : 20, 61</p>
<p><b>巳</b></p> <p>41년생 제3자의 시선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 짐작을 버리고 객관성을 도모하라. 53년생 처신만 잘 한다면 큰 지장이 없다. 65년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77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89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01년생 방심하면 놓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4, 75</p>	<p><b>亥</b></p> <p>35년생 행운이 다가온다. 47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로다. 59년생 불굴의 투지로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목적이 이룰 것이다. 71년생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83년생 가지는 게 편임을 알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95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95</p>